

요한복음의
은혜의 교리

The
DOCTRINES
of GRACE
in the
Gospel of John

저자: R. BRUCE STEWARD(1936-2006)

번역자: 정 연해

요한복음의 은혜의 교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 요 6:37

목 차

1. 서론

2. “전적인 타락”

진단

예측

3. “무조건적 선택”

1)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 자신의 것이 되도록 선택하셨다.

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

3) 그 아들은 그들을 위하여 죽기로 태도를 분명히 하셨다.

4)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주신다.

4. “제한된 속죄”

1)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죽음은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5. “저항할 수 없는 은혜”

1)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변혁시키신다.

2) 변혁된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6. “성도의 견인”

1)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된다.

2)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인내한다.

7. 끝맺음 말

답변된 두 가지 질문들

이 교훈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것들을 만든다.

불확실한 가?

『요한복음의 은혜의 교리』는 1982년 미국 뉴저지 주의 앵글우드 침례교회(Englewood Baptist Church, New Jersey)와 1991년 플로리다 주의 은혜 침례교회(Grace Baptist Church, Florida)에서 강연된 일련의 메시지들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 판권소유 Chapel Library(1998).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이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1) 명목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는 한,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2) 또한 이 저작권의 고지(告知)와 이 책의 모든 본문이 포함된다.

채플 도서관(Chapel Library)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사역 기관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부를 요청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기부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감사하게 받는다. 채플 도서관은 채플 도서관이 출판하는 저자들의 모든 교리적 입장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거나 여러분의 국가를 위해 나열된 국제 유통업자에 문의하기 바란다.

북미에서는, 이 작은 책자 또는 이전 세기의 다른 그리스도 중심 자료의 추가 본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란다.

Chapel Library

2603 West Wright Street

Pensacola, Florida 32505 USA

Phone: (850) 438-6666, Fax: (850) 438-0227

chapel@mountzion.org, www.chapellibrary.org

학습 가이드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성경 학습 자료 및 통신 과정에 대한 정보(종종 이전 세기 원문에 기초함)는 다음과 같다.

Mount Zion Bible Institute

2603 West Wright Street

Pensacola, Florida 32505 USA

Phone: (850) 438-6666, Fax: (850) 438-0227

school@mountzion.org, www.chapellibrary.org

강좌는 www.chapellibrary.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서론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

모든 세대에서 강단과 회중석에 있는 기독교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필요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가 뒷받침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는 이 간단한 연구를 준비했다.

나는 요한복음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는” 그 제자에 의해 분명히 기록되었기 때문이다(20:30-31).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사람들을 향한 그의 엄숙한 말씀을 읽는다. 요한복음서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사도로서 성령의 인도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기록한 목격자의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14:25, 26; 15:26, 27; 16:13-15; 20:30, 31; 21:24).

이 복음서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소년들과 소녀들에게 여기서 그들의 성경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해왔다는 것이다. 내가 21년 이상 목회했던 교회들은 문학 전도의 수단으로서 요한복음을 전파하였다. 나는 또한 이것이 많은 복음주의 목사들과 교회들의 관습이라는 것을 관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내가 믿고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좋은 소식”과 동일한 것임과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과 교회에게 항상 전파하도록 위탁하셨던 것을 중요시한다(마 28:18-20; 눅 24:44-49; 사도행전 여기 저기를 보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들과 관련하여 분열되어 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지 또는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다.

교회사에 있어서 두 가지 논쟁점

두 가지 기본적인 논쟁점은 우리가 취하는 관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모두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요청하기 때문이다(막 1:15; 행 17:31; 20:21).

2) 두 번째 논쟁점은 하나님과 구원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놓으신 것,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실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의 가능성인가?

이것은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논쟁점들이다. 이것들은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의 논쟁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중세를 통해서 이것들은 중세의 신학자들에 의해 토론되고 주장되었다. 6세기에 루터는 에라스무스에 대항하여 어거스틴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요한 칼빈은 그의 당대에 로마 교회와 반(半) 펠라기우스 파와 반대하여 이 논쟁을 시작하였다. 17세기에 도르트 회의(서기 1618-19년)에서 다시 이 문제는 토론되었다. 이 회의에서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1609년에 죽음)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한 그룹이 복음에 대한 어거스틴과 칼빈적인 이해에 항의를 하였다. 이 두 가지 논쟁점에 대한 이 회의의 응답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훈을 성경적인 진리로 옹호하고 알미니우스의 교훈을 거부한 것이다. 이 회의의 응답은 “톨립”(TULIP)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다.

T.U.L.I.P.

TULIP는 먼저 (암기를 돕는) 연상기호이며, 그 다음은 이 두 가지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이 회의의 견해를 나타내는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의미하는 각 문자의 머리글자로 만든) 두문자어(acronym, 頭文字語)이다. TULIP가 나타내는 성경의 다섯 가지 교훈의 각각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 두문자어는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큰 목적을 제공한다. 이 다섯 가지 교훈은 “은혜의 교리”(Doctrines of Grace)를 구성한다.

TULIP라는 단어의 각 문자가 나타내는 것과 그 반대 관점에 주목하면서 이 단어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T - TOTAL DEPRAVITY(전적인 타락)

타락에 의해서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즉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반대 견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U -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수 많은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을 것으로 예견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사랑과 그가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목적 때문이다.

그 반대 견해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것으로 예견하셨고, 그 기초 위에 그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L - LIMITED ATONEMENT(제한된 속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가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구원을 확보하셨다. 따라서 그의 속죄는 그들에게 제한되었다.

다른 견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과정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이다.

I - IRRESISTIBLE GRACE(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 받은 자들(곧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으며,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혜택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 복음을 믿을 것이다.

반대 견해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저항될 수 있으며 그 은혜의 수납은 성령님의 사역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협력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P- PERSEVERANCE OF THE SAINTS(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존될 것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견해는 복음을 진실로 믿은 사람도 언젠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떠나 그래서 영생을 잃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접근을 할 때, 성경 -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부분의 모두 - 을 오류가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말씀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는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의 구원의 방법을 위해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요 1:1-5, 9-18; 14:25, 26; 15:26-27; 16:13-15을 보라).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요 2:24, 25; 5:33-42; 6:15, 64, 70, 71을 보라).

“전적인 타락”

결정적인 문제는 전적인 타락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과 마지막 관점인 성도의 견인)에 지지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주제를 토론하면, 그들은 어떤 점에서 사람의 의지는 비록 타락에 의해서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수 있고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새로운 출생은 고사하고,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는 진리를 확신한다. 인간의 상황에 대한 가르침은 두 가지 제목 아래 고려될 것이다. 첫째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고 둘째는 큰 의사 자신에 의해 지도를 받는 대로의 인간의 상황과 그의 사랑 받는 학생인 요한의 예측이다.

진단

1. 인간의 영적인 지식

요한복음의 머리말(1:1-18)에서, 우리는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황에 직면한다(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영적인 무지의 상황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빛을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중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3:3)고 말씀하셨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기적에서(9장), 예수님께서서는 특히 인간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9:39-41),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영적인 상태임을 지적하기 위하여 그 기회를 사용하셨다.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보는 능력을 의미한다)만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8:12). 사람은 맹인이고 어둠에서 살아간다(12:35, 40).

그러나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청각 장애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아버지께서는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하여 자신을 증언하셨지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5:36-38)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증언뿐만 아니라 아

들의 증언(3:11) 또는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증언조차도 인간 편에서는 받기에 불가능하다(1:6-8, 15, 19-36; 5:33-36; 8:27-36을 보라). 그들은 요한의 빛을 기뻐하였지만, 요한이 증언한 자(예수님)를 기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요한의 사역의 전체 목적인 그 중요한 대목에서 요한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1:6-8).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말[내가 말한 것]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8:43).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8:37).

마지막으로, 사람은 영적인 것들에 무지하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와 마주한다. 5절에서,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고, 10절에서,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하였으며, 11절에서, 그들은 그(예수님)를 “영접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그(예수님)를 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26절), 그들은 여전히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우물가의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강조하셨다: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필요한 은혜로운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2) 그(그리스도)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4:10-26).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3:10), 유대의 군중들(7:41, 52; 10:20-24; 12:40), 바리새인들(8:19), 그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8:31-32, 43, 55), 회당의 관리인들(9:16, 29-34),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서(13:6-9) 이러한 무지를 발견하셨다. 그는 그의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부터 받는 반대와 핍박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16:1-3)고 말씀하신다. 타락에 의해서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0.00000이라는 영적인 아이 큐(IQ)를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하여 맹인이요 청각 장애자이며 무지한 자이다.

2. 인간의 영적인 애착

인간의 애착은 그가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서, 즉 그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과 그로 하여금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그를 “화나게 하는” 것에 나타난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그리스도, 참 빛,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반감(反感)을 가진다. 요한은 그가 “그[말씀(1절), 생명(4절), 빛(4-5절, 9절)]는 그 자신의 백성[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 자신의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11절)고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러한 반감을 지적한다. 이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요약한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을 가진 그들의 신분(8:33, 39)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5:39),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거부하였다. 악인이라는 인간의 상황 때문에, 인간은 빛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는 빛을 미워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빛이 자기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3:20). 이것은 참 생명에 대한 혐오감을 포함한다(5:40). 인간이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권고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다(8:48, 49). 인간의 영적인 반감은 육체의 욕망과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계획에 나타나 있다(7:19, 25, 32; 8:59-10:31; 11:50-53; 12:10).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에 끌리고 악에 집착한다. 그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3:19). 어둠은 그가 살고 움직이며 그의 존재가 있는 분위기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의지와 전례(前例)는 그의 삶에 있어서 지배적이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살인자이다(8:44; 12:31; 14:30). 그의 삶의 규칙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정이 아니라 죄와 사탄에 대한 그의 동료 종들의 박수 갈채이다(7:13; 9:22; 12:42, 43; 19:38).

예수님 또한 인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중독되거나 노예가 된다고 가르치셨다. 첫째, 인간은 죄에 의해서 노예가 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8:34).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노예의 증거이다. 둘째, 죄에 대한 중독은 사탄에 대한 노예 상태의 증거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행한다” ...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8:39-41)이 아니라 “마귀”이다(8:44). 셋째, 그는 인간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고, 죄와 사탄의 지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속고 있다고 가르치셨다(12:25).

가룟 유다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중독의 한 예이다(12:4-6). 물질의 소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과 욕심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신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원인이 되었다(13:2). 그는 사탄의 도구

가 되었고(13:26-27),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자주 가시던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당국자들을 인도하였다(18:1-3, 5). 우리는 유다의 성격에 관한 글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은 가장 끔찍한 신, 곧 자신을 멸망케 하는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

3. 인간의 영적 자유 의지

이것은 중요한 지점 안에 있는 중요한 점이다.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결정을 만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의 관심(죄, 자아, 그리고 사탄)과 그의 애착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결정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지 잘못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은 이중적인 무능력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한다고 가르치셨다.

첫째, 인간은 생명을 위해 그(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6:44)고 말씀하셨다. 다시 그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6:65)고 말씀하신다.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능력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1) 내적인 매력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심”과 (2)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하는 능력의 아버지의 선물 즉 “보조금.” 그는 또한 그에게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임을 가르치셨다(6:37).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에게 그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3:12)고 말씀하셨다. 생명의 떡에 대한 그의 강화(講話)에서, 그는 그를 믿는 것과 그에게 오는 것을 연결하셨다(6:64-65). 이 연결은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가리킨다. 같은 강화(講話)에서, 그는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들”만이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신다(6:53-58).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을 보여주는 생생한 방법이다. 이 “어려운 말씀”(6:60)의 결과로, “그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6:66; 참고. 8:30-31). 선한 목자와 그의 양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믿

지 않음에 대한 이유를 그들은 그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10:26-27).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들 가운데 두 가지의 성취로 대중들의 완고한 불신에 대하여 언급한다(12:37). 요 12:38에서, 그는 이사야 53:1을 인용한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다음 구절에서 그는 “그들은 능히 믿을 수 없었다”(즉, 그렇게 하기에 무능력하였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다시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다”(12:39-40; 사 6:10). 예수님께서 친히 자유로이 행동하는 의지의 반대로서 그에게 오지 않은 이 실패를 언급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5:40).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내적인 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또는 “믿기”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하여”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요 1:13; 3:3, 5, 7). 인간의 어두워진 눈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열려 깨우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죄에 대한 그의 고집스러운 애착은 그가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도록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완고한 의지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에 의해 가능케 되어야 한다.

4.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활동

요한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황에 대한 표현은 인간의 행위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친다. 예수님께서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3:19-20)라고 가르치셨다. 19절에서 “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활동적인 악, 곧 “치명적”이거나 “파괴적”인 악이다. 20절에서 “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인간의 행위의 “무익함”을 가리킨다. 첫째 단어(19절)는 위의 1-3 항목에서 설명된 내적인 삶을 나타내는 사람의 뿌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단어는 그러한 뿌리로부터 맺어진 열매를 언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3:18).

인간의 생명은 믿음과 순종이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3:18, 36).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에게 순종함으로 입증된다. 믿음이라는 뿌리가 없다면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그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가르치셨다(14:15, 21, 23). 그는 계속하여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14:24; 15:23-26)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불순종함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다(5:23; 참고. 39-47절).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타락한 인간의 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뿌리와 그 열매의 무익함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동기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모욕하는 그 목적으로부터 선과 악으로 판단된다.

5.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황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결론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서 우리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이끌어 낼 수가 없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은 그 자신 안에 생명이 없다고 가르치셨다(6:53). 영생을 위하여 성령에 의한 “새로운 출생,” “예수님께 나아 오,” “예수님의 살을 먹음,” “예수님의 피를 마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또한 이것을 의미한다(예, 요 3:1-11; 5:40; 6:53-58; 20:30, 31). 그가 홀로 생명이요, 그가 홀로 생명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선물을 떠나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믿도록 요구한다(요 10:27-28; 11:25-26; 14:6).

둘째로, 예수님은 회심하지 않은 인간의 상황은 현재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신다(5:24). 그 다음, 그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5:25)고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언급하심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언급하신다(28-29절).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악취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을 때), “손과 발은 수의(壽衣)로 묶이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싸여져 있었던”(11:38-44) 나사로와 같다. 동굴 무덤으로부터 나사로를 불러 낸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43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목소리뿐이었던 것처럼(44절), 오늘 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목소리가 그들을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 내신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측

진단 하신 분은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권위 있는 예측을 하신다. 만일 사람이 이 생애에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심판의 부활 때에, 사후(死後) 기간에서 직면할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5:29).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를 기쁘시게 할 책임이 있고, 그의 앞에서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5; 7:28; 9:40, 41; 10:37-39; 15:22-25).

인간이 겪고 있는 세 가지 결과들이 있다.

1)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믿는 자들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3:16).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8:12-59)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언급하셨다(8:21, 24). 그들은 영원히 내쫓길 것이다(6:37; 또한 8:35; 10:28을 보라).

2)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

세레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신 “신랑”(3:27-30) 곧 “아들”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3:31-35). 그 다음 그는 아들을 믿는 자들과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상태를 대조하였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다

(3:36).

3) 인간은 이미 정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는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없으셨다. 왜냐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3:17-18). 이 심판은 악을 행한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마지막 날에 공적으로 선언될 것이다(5:28-29).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는 기대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끔찍한 것이다. 영적인 수의(壽衣)를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영원히 멸망한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을 충만하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써 영원한 죽음으로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위대한 의사가 제시하는 예측이다.

“무조건적 선택”

이제 우리의 주의(注意)는 하나님 -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가장 사랑하는 자,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 속에 있던 자를 주신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 께 집중된다(1:18; 3:16; 17:24).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은 이전 장에서 언급한 대로 인간의 성격과 상태를 고려한다면 놀라운 것이다. 인간 안에, 인간에 대하여 또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전적으로 부패하고 불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태나 성격을 바꾸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영원한 사랑은 특정한 수의 타락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네 가지 범주의 진술이 있다.

1.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 자신의 것이 되도록 선택하셨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 자신의 것이 되도록 선택하셨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에 의해 명백하게 설명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은 먼저는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6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9절), 그리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10절)라는 구절을 읽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23절) ...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24절)”라고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자신의 자유로운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 자신의 것이 되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음을 상기시키신다(17:2).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17:11)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중에서 내[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17:6)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17:9).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11명의 사도들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20-24절에서 그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것이다. 20절에서 우리는 “내가 비유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 - 아버지께서 나[예수님]에게 주셨고 또한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준 그 말씀(6-8절을 보라) - 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다(21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다. 이것은 일세기 때부터 이 세대가 지속하는 오늘날까지 교회를 포함한다. 그는 24절에서 계속하여 사도들과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 - “그들 또한 아버지께서 나[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다”(6:37; 10:29을 보라) - 을 포함하신다.

3.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위하여 죽기로 태도를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고, 그의 아들은 그들에게 주실 영생을 사기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셨다. 이 문제는 다음 항목에서 보다 더 충분히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만 간단하게 다룰 것이다. 10장에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11절)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17-18절)라고 말씀하신다. 양들을 위한 그의 죽음(목숨을 버림)과 부활(버려진 목숨을 다시 취함)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한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18절).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이루셔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4:34; 5:30, 36; 6:38; 17:4; 19:28-30)과 그를 기다리고 있는 큰 고통으로 가득한 그의 때(2:4; 7:30; 8:20; 12:23, 27; 13:1; 16:32; 17:1)를 의식하신다. 예수님께서 동산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전 경비 병들을 데리고 오는 유다를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당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셨다”(18:3-4).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을 때, 그는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그에게 주신 잔을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18:11).

4.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확보되게 하는 수단을 주셨다.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그 영생이 그들에게 확보되게 하는 수단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a.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영생과 관련하여,

- 1) 영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현재 선물이요 소유물이다(6:39-40; 14:2-3).
- 2) 영생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포함한다(5:24, 25, 28, 29; 6:39, 40, 44, 54).
- 3) 영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17:24; 참고. 1:14; 17:5).

b.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고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약속하고 주신다.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능력을 주신다(6:37, 44, 65).
- 2)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능력을 주신다(6:40; 10:26, 27). 이 연결에서,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예수님의 진술을 이해하여야 한다(6:51, 53-58).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

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 삶이 음식과 음료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유일한 원천이자 지원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다.

3)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르는 능력을 주신다(8:47; 참고. 8:46; 10:26-27, 29).

구속(救贖)의 언약

이 단락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합의 또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의 죽음으로서 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합의를 보셨다(위의 단락 1과 2를 보라).

이것은 둘째, 즉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된다. 은혜 언약에서, 신성의 원천으로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와 중보 자로서 아들이 선택 받은 자들의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모든 수단을 확보하신다(위의 단락 3과 4를 보라).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요나 2:9).

“제한된 속죄”

“제한된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로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며, 그의 속죄의 효과가 그들의 구원을 실제로 확고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강조된다.

- 1) 그 구속(救贖)은 특별한 것이며,
- 2) 그 구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제를 다루는 두 종류의 구절들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그의 죽음을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게 함으로 나타낸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들은 결코 조화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진정한 모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경이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구절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가?

1.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a. 10장

이 진리를 나타내는 첫 번째 구절은 10장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께서는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이 양들은 “그 자신의 것”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되었다(3-4절 참고하라).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진술을 일곱째 달에 있는 초막절에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다(7:2을 보라). 나중 에 열두째 달에 있는 수전절(하누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10:22-23).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불신을 그들은 “나의 양들이 아니라”는 표지(標識)로 설명하셨다(10:26).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救贖)하는 죽음의 대상이 아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양의 두 가지 표시를 언급하신다. 그것들은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 그리고 나를 따른다”(14절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11-18절을 보라), 그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정된 영생을 주신다(28-29절). 이 주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구절은 21장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다(21:15-19). 베드로는 그리스도(벧전 5:1-5을 보라)와 그의 양(요 10:16-17)의 아래에서 섬기는 더 낮은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섬김에 대한 베드로의 동기는, 그의 양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15-19절)에 대한 그의 사랑이다.

b. 11장

다음 구절은 요 11:47-53(18:14을 참고하라)에서 발견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의 마지막 위대한 공적인 기적을 방금 수행하셨다(11:38-44). 그 결과로서, 마리아의 많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하였다(11:45-46).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입증하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하여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11:47).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로마인들로 하여금 그 당시 구성된 유대 국가와 종교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가혹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대중의 불안의 근원으로 보았다(11:50).

대제사장 가야바는 주목할만한 예언을 하는데(51절),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의 재빠른 상황 판단에 따른 정책 또는 예리한 정치적 움직임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발람 자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민수기 22-24장을 보라), 가야바의 말로서 말씀하셨다. 가야바의 말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11:49-50).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배운다.

1) 예수님을 죽이는 이 행위(11:53)는 역사의 흐름에서 위기(역자 주(註), 죄로 가득한 세상의 위기와 동시에 가야바와 유대인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대하여 훌륭한 질서이다.

2)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한의 해석에 따르면,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11:52,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아들에게 주셨지만 아직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참고. 10:16; 17:20)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다.

3) 예수님의 죽음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그 민족의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요한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려는 것”(51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가야바가 말한 이 예언은 가야바 “그 자신이나” 또는 그 자신의 생각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그룹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과 다른 민족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나타낸다.

c. 13장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13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문자적으로는 “최대한도로” 또는 “영원히”) 사랑하시니라”(13:1). 여기서 우리는 그의 죽음이 그 자신의 사람들을 위한 그의 큰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안다. 이 장(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겸손한 섬김을 강조하시고 그의 섬김이 그들(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딱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곧 그의 배반자 가룟 유다라고 언급하신다(13:2-31).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섬김을 그의 제자들이 서로에게 나타내야 하는 모범으로서 제시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13:34; 참고. 31-33절). 그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위한 그의 죽음에 의해 입증되었다.

d. 15장

15장은 그의 사람들과 그와의 관계에 관한 예수님의 강화(講話)를 내용으로 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 아버지는 농부(또는 포도 나무 재배자)이며, 그의 제자들은 생명을 위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아버지에 의해 전지(剪枝)되는 가지들이다.(15:1-8).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그의 제자들을 향한 그의 사랑

의 주제를 다시 계속 말씀하신다.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들의 모방을 위하여 모범과 본으로 다시 표현된다(9-12절). 그는 13절과 14절에서 그의 사랑의 위대함을 제시하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음은 주목하라.

- 1) 그의 죽음은 자발적인 것으로서 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다.
- 2) 그의 죽음은 그의 친구들, 즉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3) 그가 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그들이 복종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e. 17장

특정한 구속(救贖)에 대한 이 주제와 관련된 마지막 구절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있는 17장 19절이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기도하신다. 이 구절의 구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의 백성의 삶에서 일어날 것의 근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동사 “거룩하게 하다”가 능동태이고 “거룩하게 함을 얻다”라는 과거 분사는 수동태라는 사실이 이것을 보여준다. “이는(*iva, hina*)”으로 번역된 단어 또한 뒤 따라 오는 것은 문장에서 그 단어의 선행하는 것의 목적이나 결과를 언급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며, 이것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십자가 위의 그의 죽음에서 최고 절정에 이름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기도의 상황과 그 내용은 동일하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16:28)고 말씀하셨다. 그가 기도 하신(17장) 후에, 우리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18:4)는 말씀을 읽는다. 그 다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 편 귀를 벤 후에(18:10),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18:11)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의 잔, 곧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기도 그 자체에서, 우리는 죽음과 고난의 어두운 분위기를 발견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17:1), ...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11절), ...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13절), ...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24절).” 이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의 헌신이 그의 마음에 매우 절대적이어서 그는 이미 죽어 그의 아버지께로 이미 돌아갔음을 나타내며, 대단히 그러해서 그는 그것을 이미 끝난 것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17:4).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죽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17:2, 6, 9, 20, 24). 예수님의 죽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죽음은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 “누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구절들을 생각할 것이다. 그 목적은 그 구절들이 특정한 또는 제한된 속죄와 충돌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a. “세상의 죄”(1:29)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1:29)는 말로 그의 청중들의 주의(注意)를 예수님께로 돌렸다.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사랑 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제자(사도 요한으로 추측됨)와 함께 서 있었을 때, 그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1:36)라고 외쳤다. 예수님께 적용된 “어린 양”이란 단어는 자연스럽게 요한의 청중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과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들을 떠올리게 했다(요 2:13을 보라. 2:13은 요한이 이 말을 한 때는 유월절 이전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은 깜짝 놀라운 선언이다.

1)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희생적 죽음으로 죽기로 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참고. 요 8:36).

2)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포함한다(11:50-52을 보라).

만일 우리가 일세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메시아가 전적으로 그들의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이해한다면, 그 말들은 그들의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고 구약 예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타개하는데 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범위¹는 특정한 구속을 배제하지 않는다.

b. “들림 받음”(3:14)

지금 우리는 요 3:14-18; 8:28 그리고 12:32-34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의 들림 받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요한은 우리에게 들림 받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보여주는 것”(12:33)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3:14)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5)고 설명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혜택인 영생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지속적인 신뢰(동사 “믿는다”의 현재분사 “믿는 자”[ὁ πιστεύων, *ho pisteuōn*]의 의미)를 가진 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3:16-17)고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다음을 주목하라.

- 1) 하나님의 동기 –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 2) 하나님의 행동 –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 3) 하나님의 목적 – “그(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18절).

¹ 보편적 범위 – 속죄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온 일부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보편적 범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보편적임을 본다²-“세상”(요 3:16-17에서 네 번)과 “...하는 자마다”(15-16절에서 두 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또한 **특정한** 사람들로 제한된다(정관사에 따라 오는 현재분사, “믿는 자”[ὁ πιστεύων, *ho pisteuōn*, 15, 16, 18 절]). 무조건적 선택에 관한 우리의 토론의 관점에서(우리는 그 토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보편적인 맥락에서 특정한 선택과 특정한 속죄는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본다.

요 12:32-34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많이 본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12:32)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청중들의 이의가 제기된다. 청중들의 반응에 대응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빛”을 믿을 필요성을 지적하신다(34-36절). 32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용어는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나의 죽음의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c. 세상의 구주(4:42)

우물 가의 여인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진술은, 특히 이 구절의 흐름에 의하면,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4:42)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한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루시는 절정이며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고백이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진술을 하는 것은 비평이나 추가적인 논평 없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그들의 결론에 대한 진실성을 강조한다.

² 범위는 보편적이다 -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25, 26, 29절).

2) 예수님은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10, 13, 14절).

3) 예수님께서 구원이 더 이상 유대인들의 독점적인 특권이 아니며 예루살렘만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가 더 이상 아님을 밝히셨다(21-24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가리키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14, 29, 39, 41절).

이 진리는 다시 이렇게 정리된다. 예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지만* – “누구나,” “세상의 구주”(4:14, 21-24, 42),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14절), “참 예배 자들은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23-24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23절), “그 동네 중에 많은(모두가 아님)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39절),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41절).

위의 단락의 관점에서 42절의 진술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대답은 모든 것이다. 죄에 대한 속죄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한 여자의 진술의 핵심이다(19-20절). 간음을 범한 여자의 상태(17-18, 29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인 “어디에서 나의 죄를 위해 적절한 희생 제사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까?”라는 것은 쓸데없는 호기심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필요하였고, 죄로부터 구원도 필요하였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위한 희생적이고 대체적인 죽음은 이 구절에서 크게 부각된다.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의미에 관한 우리 복음서(즉, 요한복음)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

d. *세상의 생명*(6:51)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마지막 구절은 요 6:22-59이다. 예수님께서 전 날에 먹이신(6:1-21을 보라) 군중들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다(6:59). 요한은 우리에게 그 때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 받은 것(출애굽기 12장을 보라)을 희생 제사로 기념행사를 하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요 6:4)고 말한다. 생명의 떡에 관한 그의 강화(講話)에서(요 6:32-59),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6:51)고 말씀하셨다. “그의 살을 주신다”는 이 표현이 그의 죽음(33절을 보라)을 언급하는 것은 53-56절에서 명백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이나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의 살과 그의 피가 분리될 그의 죽음은(19:33-37을 보라) 영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수단이다(6:51, 53, 54, 56-58).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용어들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55절)말로 생생하게 표현된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양식과 음료에 의존하는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존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상”(요 6:51)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의미하며,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인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포함하는) 영생을 가지는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35, 44, 45절; 참고 65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35, 37, 40, 47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37, 38절; 참고. 65절),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44절),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45절)임을 우리는 읽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50, 51, 53, 54, 56-58절) 마실(53, 54, 56절) 수 있다는 구절에 주목한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보편적이고도 특정적*임을 확인한다. “제한된 속죄”라는 용어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에 관한 보편적 특정주의³를 제시하였다(이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계 7:9-10을 또한 보라).

³ 보편적 특정주의 - 이것은 속죄에 적용되는 흔치 않은 용어이지만, 저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혁신학과 일치한다. 1) 그의 공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로부터*(보편적) 구원될 일부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2) 그렇게 예정된 모든 사람들(특정한)은 구원될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믿음에 관한 글을 적절한 시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조사 결과를 여기서 요약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무리에서(T),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일부를 영생으로 선택하셨고(U),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L). 현재의 표제 아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혜택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지금 논의 중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들에게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사람에게도 저항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행 7:51을 보라).

1.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의 영으로 변혁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 많은 인류의 무리들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과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의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그의 영(성령)으로 변혁시키신다.

a. 하나님의 역사(役事)

그의 복음서의 맨 처음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지적한다(요 1:11-13). 이들은 인간의 어떠한 특권이나 인간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진실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의 은혜로운 역사(役事) 안에서 발견된다(1:12-13).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출생의 원천이다.

이 진리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에 의해 제시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

고”(3:3)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3:5) 새로운 출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이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영(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3:5, 6, 8). 이 결과로 사람들은 확신하는 태도로 “들림 받은” 인자를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그의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를 주셨음을 알 것이다(3:14-16).

b.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은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새로운 생명을 그 자신의 것들, 곧 그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그의 은혜로 주신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증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을 한량없이 가지고 있으며(3:34-35), 하나님의 어린 양(1:29, 36)이며 하나님의 아들(1:34)이신 그는 성령님으로 또는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언급하였다(참고. 고전 12:13).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그 성령님은 그 때 영적인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에 주목한다(참고. 요 6:63).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큰 위로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분, 곧 “진리의 성령님”이요 “위로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14:16-18, 26; 15:26). 성령님은 아버지(14:16-26)와 아들(15:26)이 주시는 선물이며, 성령님은 아들을 증언하고(15:26),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16:13-14),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바로 그 분을 언급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유죄 선언하심으로써(16:7-17), 생명을 주시는 진리를 가르치신다(14:26; 참고. 8:32-36).

우리는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17:1) 그에게 주신(17:2)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생수를 주신다(4:10, 14). 비록 아들이 살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하더라도(5:25-27), 그는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5:21). 그가 말씀하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단지 선택된 그룹만을 그의 양으로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그를 믿기 때문이다(10:26-30). 아버지께서 그(예수님)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단지 그들에게만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을 주신다(특히 10:28-29을 보라).

c. “이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수단으로써 그의 죽음을 언급하는 “들림 받음”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신다(요 12:32-33). “이끌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들의 의지를 사로잡을 것임을 가리킨다(12:35-36).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그 자신의 사람들을 저항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예수님께서 “이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다른 경우는 생명의 떡에 관한 그의 강화(講話)에서였다(6:22-59).

1)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에게서 이끌림 받은 자들만이 그에게 올 것이며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6:44).

2)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다(6:44; 참고. 사 54:13).

3) 예수님께서서는 나중에 그의 제자들에게 생명을 위하여 그에게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은 아버지의 선물이었다고 말씀하셨다(6:65).

4)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권위 있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6:37)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예수님께 오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6:39, 40, 44, 54)는 말씀으로 안심시키신다. 만일 세 겹 실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진리의 사중(四重) 약속이 무효화될 수 있을까?

우리 복음서에 따르면,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은 아들에 의해 구속(救贖)되고 삼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거듭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아들에게 나아와 아들을 영접한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요 14:1, 6, 15).

2. 하나님께서 변혁시키신 사람은 비활동적이거나 반응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변혁시키신 사람은 돌이나 나무 조각처럼 비활동적이거나 반응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그의 존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활동한다. 우리는 그의 영적인 삶의 다음의 측면에서 이것을 본다.

a. 그의 진정한 영적이고 구원하는 지식에 관하여

1) 그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3:3)와 하나님 아버지(1:18; 14:7-9)를 볼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보며 삶을 통하여 자신을 인도할 세상의 참 빛을 가지고 있다(1:9; 8:12).

2) 그는 더 이상 농아(聾啞)가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5:25; 10:3, 4, 16, 27; 18:37)과 그리스도(5:24; 참고. 4:42)의 생명을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8:47)을 듣는다. 그의 귀는 영적으로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꼭 붙잡는다.

3) 그는 더 이상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1:29, 34), 하나님의 선물, 생수(4:10, 14), 그리스도(4:10, 25-26; 6:68-69; 17:3), 세상의 구주(4:42), 교훈(7:17), 선한 목자의 음성(10:3-4, 14, 27), 참 하나님(17:3), 증가하는 방식에 있어서(17:26) 아버지의 이름(17:6-8),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17:25)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지식으로, 그는 그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충족되도록 요구한다(4:10).

b. 그의 새로운 영적인 애정에 관하여

1)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이다(14:15, 21, 23; 참고. 24절).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향한 이러한 사랑은 정서적인 느낌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야기(惹起)하는 것임을 지적하신다.

2) 그리스도를 향한 새롭게 된 사람의 사랑은 더 이상 그 자신의 이익과 욕구 그리고 행복에 집중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는 자신을 자기 자신의 마음의 권좌에서 퇴위시키고(“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 12:25)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12:26)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죽는

다(12:24).

3) 새롭게 된 사람의 애정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로 향해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한다(13:34-35; 15:12, 17).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a) 그들의 사랑은 *지성적(知性的)이다*. - 그들은 서로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한다.

b) 그들의 사랑은 *동정적이다*. - 그들은 불행과 고통은 그러한 필요의 결과임을 알고 있다.

c) 그들의 사랑은 *단호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바란다. 그들의 사랑은 기도 와 위로의 말 그리고 필요를 해소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사랑이 있음을 본다(21:15-22을 보라).

c. 새롭게 된 사람의 의지에 관하여

1)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적극적인 사람이다(7:17).

2) 새롭게 된 사람의 욕망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15:9-10).

3) 새롭게 된 사람의 욕망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8:31).

d. 새롭게 된 사람의 활동에 관하여

1)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에서(1:16)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1:12, 13)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17:8) 사람이다.

2) 새롭게 된 사람은 “그의[그리스도, 말씀] 이름”(1:12-13; 참고. 3:16, 36; 6:68-69; 9:35-39; 11:45; 20:30-31)을 믿고, 그를 보내신 자(17:25)와 그리스도의 나타난 영광(2:11)과 그의 말씀(4:41)과 아버지의 말씀(17:8) 그리고 그(그리스도)에 관한 사도들의 말씀(17:20)을 믿는 사람이다.

3) 새롭게 된 사람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10:7, 9)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3:3).

4) 새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이다(6:37, 44-45; 참고. 6:65).

5)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떡과 생명의 떡(6:51), 곧 인자의 살(6:53-56)을 “먹고” 인자(그리스도)의 피(6:53-56)와 생수(4:10, 14)를 “마시는” 사람이다.

6)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 두 단어(제자와 따르는 사람)는 모두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임을 가리킨다(1:34-51; 8:31; 10:27; 13:34-35을 보라).

7) 새롭게 된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진리를 실천하고(3:21)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6:27-29).

8) 새롭게 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이다(4:23-24; 9:38; 참고. 20:27-28).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의 삶에서, 그의 모든 능력과 활동에서,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았지만, 자신에 의해 살았던 것임을 본다.

“성도의 견인(堅忍)”

우리는 이제 우리의 두문자어(頭文字語) TULIP의 마지막 글자에 이르렀다. P는 성도의 견인(堅忍)을 의미한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끝(죽음 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이며 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생명의 축복의 충만함을 경험할 것임을 말한다. “영생”에는 많은 측면이 있다. 영생은 현재 소유이며 또한 미래에 보다 더 완전하게 실현될 약속이다. 영생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 즉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다. 영생은 *양적으로* 무한한 생명으로써, 지금 시작한 생명이며 죽음을 극복하고 육체의 부활에서 분명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계속적으로 보는 생명이다(요 4:14; 5:24, 25, 28, 29; 10:9, 10; 11:25, 26; 14:1-6; 17:24). 영생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죽음 또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까지 인내할 것이며 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생명의 축복의 충만함을 경험할 것임을 말한다.

우리 복음서에서 영생은 몇 가지 방법으로 제시 되었다.

1.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a.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목적

성도의 견인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을 때 아버지께서 가지신 목적이다(“무조건적 선택” 항목을 보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39-40).

요 6:39-40에서 다음을 주목하라. 요 6:39에서 성도는 “그[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모두(all, *πᾶν παν*)”를 총합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40절에서 “이들(him, *αὐτόν auton*)”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모두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모든 사람을 말한다. 요 6:40에서 “~[믿는 자]마다(every one, *πᾶν παν*)”는 아들을 믿는 자, 각각 모두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으리라는 표시를 확인하는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28-30).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의 양은 (1) 그의 아버지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으며, (2) 영생이 주어졌고, (3) 그리고 선한 목자와 아버지의 손에 안전하게 잡혀 있기에,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b.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신 목적들 가운데 하나이다(위의 TULIP에서 L 부분을 보라). 그는 이것을 요 3:14-16에서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3:14-16).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선물은 그들(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아들이 위하여 죽으신 자들이며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영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부정적으로(멸망치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한 그의 강화(講話)를 주실 때,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10:10-11)고 말씀하셨다. 그는 영생을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10:10, 28)는 약속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믿음에 대한 그들의 인내를 위함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한다.

c. 이끄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목표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목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진술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이 진실에 초점을 맞추셨다. 그는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그의 주장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6:44)고 말씀하셨다. 이전에 이 강화에서, 그는 *무조건적 선택*(“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모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인내*(“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6:37))를 함께 묶으셨다. 진실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모든 증거 - “그리스도께로 나아옴,”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 - 는 영생을 전달한다(6:35, 40, 44, 47, 50, 51, 54, 57, 58). 많은 반대를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갈라 놓은 이 강화(講話)에는 그 때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울려 퍼져 온 예수님께 드리는 베드로의 진술이 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당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6:68-69).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최후 성도의 견인(堅忍, 굳게 참고 견딤)의 보증이다.

d.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목적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목적이다. 요한복음 17장의 그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사도들(6-19절)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예수님)를 믿는 모든 사람들”(20절)을 위하여 기도하

셨다. 이 단락(6-2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로]으로부터[ἐκ τοῦ πονηροῦ *ek tou ponērou*])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다. (1) “당신의 이름으로” – 아버지의 장엄함과 사랑스러운 속성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위대한 계시, 그리고 (2) “악[한 자들]으로부터” – 사탄과 그의 모든 기만적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24절에 주어져 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24절).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갈망의 성취를 위하여 큰 논거(論據)를 사용하셨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24절) 아버지께 간청하셨다. 이것이 그(예수님)를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성도의 최후 견인을 위한 논거이다.

요한복음에 영생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나열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가진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할 것이다. 영생에 대한 모든 언급들이 분류되고 거기에 주석이 달린다면 더 많은 페이지들을 채울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당신의 일로 남겨두고 몇 가지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내한다.

a.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내한다.

다음 언급들에서 동사 또는 분사는 그리스어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시제인 현재시제이다. 나는 요 1:12(“ ... 그 이름을 믿는 자들[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tois pisteuousin*, who are continuously believing,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의 분사를 사례(事例)로 이것을 설명하겠다. 이탤릭 체로 된 단어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보다 더 완전한 번역이다(참고. 3:15, 16, 18; 4:36; 5:24; 6:35, 40, 47; 11:25, 26; 14:1 – “너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어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를 믿어라,”[저자의 번역, 20:31]; 또한 4:42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증과 16:29-33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와 대조하여, 예수님께서서는 10:25-26에서 그의 양들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제를 사용하신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이 믿음으로 인내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신 다른 방법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에게(6:35,

37, 44, 45) 그리고 아버지께(14:6) 나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결혼이 안전을 지켜준다(역자 주: “한번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소홀히 하면서도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는 현대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b.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의 신분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내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8:31), 그 말씀(5:24)과 그의 음성(10:27; 18:37)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대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14:15, 21, 23, 24; 참고. 13:34, 35; 15:10-12, 14, 17; 21:15-17).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즉, 제자들, 8:12; 10:27; 12:26)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영위(營爲)한다(5:14; 8:11, 31-36).

c.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순례(巡禮)에서 영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찾는 일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내한다.

1)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6:58).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 때문이다(6:54-56).

2) 하나님의 백성은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목마를 때,” 7:37-39,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내게 와서 지속적으로 마라”[NASB 난외 주, “let him keep coming to Me and let him keep drinking”(v. 37)]).

3)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일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 약속된 도움을 받는다(14:13-16; 16:23, 24).

d.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는 일에 인내한다(3:21; 5:28, 29; 15: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믿음의 방식으로, 제자의 신분으로 자신들을 유지하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살고 있다.

결론

대답이 주어진 두 가지 질문들

1. 인간은 타락 이후로 그 자신의 구원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인간은 타락 이후로 그 자신의 구원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전혀 아무 것도 없다**는 대답이 분명하게 주어졌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구원을 경험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시작하시고 그것을 제공하시며 보존하실 수 있다. (앞에 설명된 “전적인 타락” 단락을 보라.)

2.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구원인가 아니면 가능한 구원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구원인가 아니면 가능한 구원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충분히 대답이 되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이다. 이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사역을 마침으로써(19:30을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목적과 그들이 지금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영광 중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초한다(위의 TULIP의 U, L, I의 항목의 설명을 보라).

이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 가지를 만든다.

나는 이 가르침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묵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a.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구원을 되새긴다면, 그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경배와 경이로움으로 채워진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것이다. 요셉 애디슨(Joseph Addison)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솟구치는 영혼이 당신의 모든 자비를 살필 때,
황홀해진 나는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에 잠겼습니다.

천 만개의 귀중한 선물들로 나는 날마다 감사하지만,
기쁨으로 그 선물들을 맛볼 수 있는 최소한의 명랑한 마음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기간을 통하여 나는 당신의 선하심을 추구할 것이지만,
죽음 이후, 먼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자연이 무너지고 낮과 밤이 당신의 작품을 더 이상 나누지 않을 때,
나의 변함없는 감사하는 마음은, 오 주님, 그 자비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께 즐거운 노래를 불러드릴 것이지만,
오, 당신의 모든 찬양을 말하기에는 영원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종(臨終) 때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지 보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b. 하나님 앞에서 겸손

자신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회고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라진 자만과 독선의 모든 흔적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한 것들이 주(主) 앞에 겸손하게 만든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위 가운데서 행한 그 자신의 선량함과 훌륭함이라고 생각된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그는, 데이비드 딕킨슨(David Dickinson)의 말처럼, “그 자신의 선량함과 훌륭함을 뒤로 남겨두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쳐서 그리스도께로 날아갈 것이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진심 어린 겸손을 만들어 낼 것이다.

c.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헌신

경이로움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러한 은혜의 교리들은 입은 찬양으로 채우고, 머리는 지식으로 채우며, 손은 일을 하고, 발은 순종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증가시킬 것이다.

1) 예배에서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가지 우려(憂慮)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배 때 단지 오락이나 흥분을 제공하는 새로움에 대한 조심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과 함께, 예배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알기 위해 편안한 관습들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며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시 29:1-2).

2) 증언에서

성경, 특히 전도를 위하여 기록된 요한복음(20:30-31)에서 이것들(TULIP)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기독교 목회자와 평신도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앞에 펼치게 될 것이다(행 20:27). 이러한 진리의 타격을 누그러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요 16:7-11)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말씀에 대한 불성실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다. 그(그리스도인)는 그가 (진리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졌기에 진리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그가 여기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진리가 하나님의 장엄함을 높인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가 위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구주”(요 4:42)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는 위로부터만 오는 그 도움을 향하여 죄인을 입다물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증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일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사실들을 제시함으로 그의 동료들에게 그의 사랑을 보일 것이다.

3) 일(works)에서

누군가가 “교리는 은혜이고 의무는 감사이다”고 잘 말하였다. 이러한 축복받은 진리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그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삶의 일은 성경에 의해 지시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명은 성경이 선한 일이라 부르는 것을 만드는 어떤 원칙들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한다. (1)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할 때(마 5:16), (2) 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유발될 때(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 (3)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요 14:15,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4)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때(마 5:13-14), 일은 선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감사에 대한 증언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점을 요약하면, 이 교훈을 적절히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겸손 그리고 헌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그의 박사학위를 추구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들 주제들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 있다. 이 진리의 전체 덩어리가 시편 65:3-4에서 발견된다.

a)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

- 전적인 타락(Total Corruption)

b) “우리의 허물을 주(당신, 즉 하나님)께서 사하시리이다”

-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

c) “주께서 택하시고 ...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d) “가까이 오게 하사”

-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e) “주의 뜰에 살게 하신 ...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아우구스투스 토폴레이디(Augustus Toplady)에 의해서 추가된 절(3, 5, 6절)을 가지고 있는 필립 도리지(Philip Doddridge)의 옛 찬송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경건한 예배를 제시한다.

은혜! 귀와 조화로운 매력적인 소리다. 메아리를 치는 하늘은 울려 퍼질 것이며, 온 땅은 들을 것이다.

은혜는 반항적인 사람을 구할 방법을 최초로 고안해냈다. 그리고 은혜가 보여주는 모든 단계들이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냈다.

은혜는 먼저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새겼다.

그것은 나의 모든 슬픔을 취해간 어린 양에게 주신 은혜였다.

은혜는 하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방황하는 발을 인도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동안, 나는 매 시간마다 새로운 공급 품들을 만난다.

은혜는 나의 영혼이 기도하도록 가르쳤고,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흘러 넘쳤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 준 은혜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은혜는 모든 일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왕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하늘에 가장 귀한 돌을 놓으며 또한 정말 찬양을 받을 만하다.

오! 당신의 은혜가 신적인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고무시키소서!

나의 모든 능력이 당신을 향한 열망이기를 바라며, 나의 모든 날이 당신의 것이기를!

불확실하다고?

나는 이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겠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 문제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20:30-31).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진단하셨고(위의 “전적인 타락” 단락을 보라), 또한 해결책을 처방하셨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14:6; 17:3).

예수님께서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1:29).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에서 들림 받은 뱀이다.” 들림 받은 뱀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3:14-16).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무료로 주신다(4:10, 14; 7:38-39).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유죄 선고를 감지하는 자에게, 듣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다(5:24).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다(6:33, 35).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8:12). 무지에서 목적 없이 방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10:11). 죽음으로 인하여 두렵고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다(11:24-25).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채워진 자에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14:6).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된 자에게, 예수님은 가지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시다(15:5).

마감하면서, 나는 단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에게 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저자의 한 마디

나는 이 책을 읽고 공부할 사람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는 여러분은 토론되고 있는 다양한 점들의 참고 구절들을 읽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이 펼쳐진 성경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셋째는 비록 그 진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은혜의 교리와 관련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입장과 모순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할 열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느냐에 관한 의견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는 또한 특히 전적인 타락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주의(注意) 사항을 덧붙일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완전하게 타락하여 우리가 그 세상에서 영적인 보호막 속으로 빠져 나와, 그 세상을 벗어나는 길만을 찾아야 하며, 타락한 사람은 유용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무 것도 없다고 결론 내릴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다. 마태복음 7:9-11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악한[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 자라도 좋은 것[실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유용한, 즉 빵과 생선]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있다.” 그는 또한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들의 결정에 그들 자신들의 근거를 위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눅 18:2-5).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능력”(어떠한 선을 행하기에도 불가능한)하고, “불경건”하며(6절), “죄인”(8절)이고 하나님의 “원수”(10절)라 하더라도,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서는 인정받고(7절) 그래서 당연히 “의롭고”(모든 의무를 충족시킴) “선한”(그들의 동료들의 후원자)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친다. 세상에서 그렇게 물러나는 것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또한 인간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롬 8:28).